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

4/28 월	4/29 화
마 14:23 23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눅 6:12 12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마 14:14-22 14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곳은 외딴곳이고, 때도 이미 늦었으니, 무리를 보내시어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16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시자, 17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라고 하였다. 18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라고 하시고, 19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20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고, 21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오천 명가량이었다. 22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마 6:1, 3-4, 5-15 1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3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5 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시다.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7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8 여러분은 그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9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15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30 수

마 6:6, 18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18 그대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마 17:1-9
1 육 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3 보아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4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5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6 제자들이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매우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시자,

8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5/1 목

사 45:15

15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상 19:12

12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와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있었다.

요 20:14-17, 24-29

14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께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15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라고 하시니,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분께 말하였다. “여보세요, 아저씨가 그분을 옮겨 가셨다면, 어디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어요.”

16 예수님께서 “마리아여!”라고 말씀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말하였다(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1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24 그러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도마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

26 팔 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27 그러시고 나서 도마에게 “그대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고, 그대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시니,

28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자,

2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5/2 금

시 42:7

7 주님의 바다 회오리 소리에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의 모든 파도와 거센 물결이 제 위로 지나갑니다.

사 37:31

31 유다의 집 사람들 중에 피신하여 남은 이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행 6:7

7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행 12:24

2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번성하였다.

행 19:20

20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힘 있게 자라고 점점 세력을 얻었다.

마 13:13:20-21

20 또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 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5/3 토**고후 12:3-4**

3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 곧 사람으로서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 39:2-8

2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서, 자신의 보물 창고와 은과 금, 향료와 귀한 기름, 무기고 전체와 보물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모두 보여 주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여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3 그때 신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하였다. “그들은 먼 땅 바빌론에서 나에게 왔소.”

4 이사야가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라고 하자, 히스기야가 말하였다. “그들은 왕궁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보았소. 내가 나의 보물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5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이날까지 너의 조상들이 쌓아 둔 모든 보물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7 너에게서 나울 아들들 곧 네가 낳을 아들들 가운데 몇몇은 끌려가, 바빌론 왕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 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와 진리가 있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5/4 주일**마 5:3, 8**

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4:13, 16-18

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호 14:5-7

5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처럼 망울지고 레바논 나무들처럼 뿌리 내리리라.

6 그의 가지는 뻗어 나가고 그의 광채는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나무들 같으리라.

7 그 그늘 아래 앉은 이들이 돌아와

곡식같이 소생되고 포도나무같이 움 돋으리니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